지역 메아리

정읍단풍미인대학 개강 11월까지 4개 과정 운영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전문 농업 경영시대를 이끌어갈 핵심 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정읍단풍미인대학'이 지난 7일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단풍미인대학은 올해 11회째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약용작물과와 친환경유기농업과, e-비니지스과, 생활문화과(꽃차) 4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약용작물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개설됐다. 새로운 소득작물로 떠오르록 있는 약용작물에 대한 농업인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기술 교육과 소득 창출 방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모범관리 공동주택 선정

고창군 환경시설사업소가 환경부가 주관한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군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8700여만원을 지원받아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속 자원재활용 실천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는 지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30여 곳을 대상으로 주변 환경 전반의 청결상태, 재활용품 분리배출 여부,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분리배출 여부 등 3개 분야를 현장 평가해 5개 단지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서, 행정 · 주무관과의 바른 공직문화 자율토크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는 행정관·주무관과의 터놓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원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면서 최근 다른 서에서 일어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사전 예방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효진 주무관은 "경찰 가족의 일원으로서 동료들과 아끼고 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맡은바 업무처리는 물론 바른 공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서장은 "지속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직장 내 성비위 예방은 물론 내부만족도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의정환경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부안군의회, 시 · 군의원선거구획정시안 반대 성명서 발표

부안군의회가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제시한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안군의회(의장 오세웅)가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제시한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을 즉각 철회하고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안 군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부안지역 도의원, 부안 군의회 의원, 사회단체장,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군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주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농어촌 지역 기초의원의 의정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구획정시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원 정수의 축소와 그로 인해 많아진 선거구로 인한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및 지역 대표성 훼손 문제와 행정구역 수와 사람 수가 비슷한 타 시·군과 형평성 결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과정에서 국회의 농촌지역 광역의원 정수 축소를 비판하던 전라북도의 논리에 전적으로 반(反)하여 국회와 똑같은 행태로 농촌지역 기초의원 정수를 줄이는 불합리성을 반복 답습하는 등 역행,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10년 이후 8년 간 아무런 문제없이 자치의회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갑자기 사람 수 대비 읍면 수 2:8의 비율을 3:7로 시·군의회 의원 정수 책정 기준을 변경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시안을 즉각 철회, 현행 의원 정수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도의 전북의 특수성을 감안, 농업인 대변자가 없고 광역의원 2명이 늘어나는 단순한 숫자 논리에 맞춰 전주시 의원 4명을 증가시키는 고무줄 잣대로 지역 몫을 빼앗가는 주민자치기능과 민주적인 절차 및 지역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근시안적이고 편파적 획정시안을 마련한 전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안전 중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총력

정읍시, 노후 교량 안전 점검 · 보수 등 도로개선 사업 62억 투입

정읍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전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시민과 방문객들의 도로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교통 혼잡지역 회전교차로 설치와 교량 보강·보수, 도로 소파와 노면 요철 정비 등 도로개선 사업에 62억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환경 개선과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해 시는 겨울철 강설과 결빙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도로에 대한 아스콘 덧 씌우기와 보수 등에 22억원을 투입한다.

시가지 도로 5km를 비롯 군도인 태인 태창리와 태서리를 잇는 700m 등 8개 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진행한다.

20억40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교량 안전 점검과 함께 보수·보강에 나선다.

교량과 터널(10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과 함께 정동교를 비롯한 9개 교량 보수 공사, 과교 입체교 보수·보강 공사도 추진한다.

또 11억1000만원을 들여 도로 배수환경과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23개소)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 시설물 정비를 비롯 노후되고 탈색된 방지턱에 대한 재도색 공사 등이 주요 사업이다.

인도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서부산업도로를 비롯한 4개소의 인도를 정비하고, 새롭게 3개소(정일여중 주변 등)의 인도를 개설한다.

사업 추진에는 모두 5억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2억원을 들여 교통이 혼잡한 과교 삼거리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고 도로 민원 해결 등(25개소, 1억원)에도 행정력을 쏟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정읍시보건소 금연클리닉실 운영 '호응'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보건소 금연 클리닉실이 시민들의 금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소 2층에 있는 금연 클리닉실은 무료로 연중(월~금 09:00~18:00) 운영된다.

정읍시민, 정읍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보건소는 "여성 흡연자 중 금연을 원하는 분이나 청소년 흡연자들이 많이 찾아 금연에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금연 클리닉실에 등록하면 6개월 간 금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연 패턴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설문조사와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을 거친 후 금연교육을 갖는다.

특히 니코틴 패치와 구강 청결제, 아로마 파이프 등 금연 보조제를 무료로 지급한다.

2~3회의 상담을 통해 일산화탄소 측정, 금단 증상과 금연에 따른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안내·교육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에게는 금연 성공 기념품도 제공해 금연 결심이 '작심삼일(作心三日)'에 그치지 않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상수도 개선사업 1013억원 투입

2023년까지 유수율 향상 · 지방상수도 현대화 등 추진

부안군은 6만여 명의 군민과 매년 부안을 방문하는 1000만 명의 탐방객에게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오는 2023년까지 상수도시설 공사비 1013억 원을 확보해 유수율 향상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군은 단기적 대책으로 '2018년 유수율 향상사업'에 군비 15억 원을 투입해 5개면의 상수도관 관말지역의 노후관 교체 및 급수시설 개량을 할 예정이다. 또 중기적 대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416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관 개량(63.3km)과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누수탐사 및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며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80억 원으로 지난달 보안면(40억원) 및 위도면(40억원) 실시설계에 착수해 맑은 수돗물 안정적 공급기반시설 배수지 3000톤 증설과 상수도 배수관로 14km 매설을 오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 대책으로 새만금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장신배수지(2만 4000톤) 설치사업에 502억 원을 투자해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및 새만금사업 부지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부안=이옥수기자

현장방문보고서 채택 · 결산검사위원 선임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는 제23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7개 사업장 총19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11개 사업장 총 26건의 조치 및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였다

안건심사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정읍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 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명장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

또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 고경윤 의원을 비롯하여, 안영길, 김정식, 김준식, 이영균씨를 선임하여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